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 규모 200명 밀돌 듯

오는 7월 26일 막을 올리는 파리 하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한국은 선수 50명이 참가한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한국은 1984년 LA 올림픽에 선수 210명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 이상을 파견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규모가 170~18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종목이 올림픽 예선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가 인원이 많은 단체 구기 종목 몰락은 치명적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단체 구기 종목 중 여자 핸드



▲ 지난 2021년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볼을 빼고는 다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남자 축구가 현재 예선을 치르고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이자 메달 '효자 종목'으로 통했던 레슬링(역대 메달 합계 36개)과 복싱(20개)은 아직 한명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예선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1948년 런던 이후 레슬링과 복싱에서 올림픽 본선에 못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

17일 현재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된 종목도 있고, 선발전을 남겨 놓은 종목도 있어 결과에 따라 선수 규모는 더 작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케냐 선수, 마라톤 '승부 조작' 실토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던 케냐 선수가 승부 조작을 실토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냐 선수 윌리 응낭가트는 전날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 인터뷰에서 중국 선수 허제가 1시간 2분 33초의 중국 하프 마라톤 신기록을 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주자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응낭가트는 4명 가운데 한 명은 완주하지 못했으며, 허제도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열린 이 대회에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제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케냐 응낭가트와 로버트 키터, 에티오피아 테



▲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손으로 중국 선수 허제에게 결승점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X

제네 비킬라 등 3명은 나란히 허제보다 딱 1초 뒤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은 결승선을 앞두고 허제를 돌아보고 속도를 늦췄고, 이 가운데 한 선수는 먼저 가라는 듯 허제에게 손짓하기도 해 승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아예 응낭가트는 "나는 승부를 겨루기 위해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왜 그들(대회 주최 측)이 내 몸에 '페이스메이커'라는 표시 대신 이름과 숫자를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매길로이 LIV 골프 이적설



▲ 로리 매길로이. 사진=연합뉴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로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신문 시티 A.M은 전날 "매길로이가 LIV로 이적하는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IV 골프가 매길로이에게 제안한 금액은 8억5천만 달러이며 여기에 LIV 골프 지분 2%도 함께 넘기겠다는 것이다. 8억5천만 달러는 LIV 골프가 출범한 2022년에 LIV 골프가 타이거 우즈(미국), 매길로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8억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다.

호주 폭스스포츠는 "매길로이는 LIV 골프 출범 초기에 LIV 골프와 대립각을 세우며 이적한 선수들을 맹렬히 비판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의 이런 입장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고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매길로이는 올해 1월에는 LIV 골프로 넘어간 선수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에는 LIV 골프 이적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또 이달 초에는 "PGA 투어와 LIV 골프의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LIV 골프에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존재한다"고 LIV 골프의 존재감에 무게를 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